

11년 연구 끝 '붉바리' 대량 번식 성공... 해외서 기술개발 제안 쇄도



바다에서 희망 찾는 사람들

다급바리 보다 더 귀하다는 능성어류 '붉바리'.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최고급 어종으로 통한다. 30년 동안 붉바리에 인생을 건 어업인이 있다. 무안 청술수산 윤락진(54·사진) 대표는 11년의 연구 끝에 붉바리 대량 번식에 성공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TUCN)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붉바리를 국내 민간양식장에서 대량 번식에 성공한 것은 어종 보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윤 대표는 바리류 대표 3종의 치어를 키워내고 있다. '대왕 붉바리', '대왕 자바리', '대왕 능성어'가 그것으로 모두 '대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이들 어종은 기존보다 성장이 4~5배 빠르기 때문이다. 윤 대표가 개발한 붉바리는 기존에 수온 30도에서 폐사하던 것과 달리 35도까지 올라가도 생존 가능하다. 붉바리 치어 생태에 맞춘 먹이를 개발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연구비만 10억 원을 들였다는 윤 대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먹이 수백억 원 가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멸종위기종 능성어류 '붉바리' 양식 무안 청술수산 윤락진 대표

대왕 붉바리 등 바리류 3종 치어 길러

10억 들여 35℃서 생존 먹이 개발

2년전 해수부 장관 공로 표창 받아

중국에 중요 수출하고 학술대회 참가

ISO인증 받아...연구소 강의·컨설팅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윤 대표는 지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년 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공로 표창도 받았다.

붉바리 대량 번식은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왔다. 2011년 윤 대표는 국내 처음으로 붉바리 종묘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윤 대표는 사실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하다. 1년에도 두세 번 중국

을 방문해 수출계약을 맺고 학술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대만과 홍콩, 제주도에서 붉바리 시식회를 열어 현지인들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받기도 했다.

윤 대표는 국내 양식업계는 포화상태라고 단언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추세가 변했지만 어종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가 새로운 품종 개발과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실을 맺기까지는 11년의 시간이 걸렸다. 민간 차원에서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연구였기에 윤 대표는 수백 번 실패를 거듭했다.

윤 대표와 수산물 연구의 인연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고향이 나주인 윤 대표는 여수대 수산양식과 1회 졸업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서 공부하다 여수에서 양식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청년 시절 윤 대표는 '물고기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쉬없이 연구를 한 탓에 강의시간에 나타나지 않아도 교수들이 결석을 잡지 않았다. 방학 때도 계



속 물고기를 접하려 다방에서 어항 뒤는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표의 기술은 해외에서 눈독들이고 있다. 지난해 그의 붉바리 양식 기술은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도 받았다. 중국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어장을 지어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 중국에서 기술 개발을 하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터키 등지에서도 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윤 대표는 해외 측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의 독자적 기술력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들에게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 연구소나 학교에서 관련 강의도 나간다.

200평으로 시작했던 그의 양식장은 1500평으로 규모가 커졌다. 윤 대표는 내년에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붉바리 치어뿐 아니라 성어도 생산해 내기 위해서다. 윤 대표는 "많은 청년과 어업인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해외에 우리 어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김성수 안국산업 대표 오늘 자서전 출판기념회

김성수 안국산업(주) 대표이사가 미수(米壽)를 맞아 자서전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를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연다. 27일 오후 5시 광주신양파크호텔.



1930년 담양에서 태어난 김 대표 이사는 고종흥 등에서 교사로 근무한 후 부국철강(주) 전무를 거쳐 1972년 안국철강을 창업, 대표이사를 맡았다. 지난 1995년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도 뛰어 들었으며 현재 곡성(성) 휴게소 대표이사로 맡고 있다.

1990년 로타리 총장클럽에 가입하며 봉사활동을 펼친 김 대표이사는 로타리 3710지구 광주전남총재를 역임했으며 국제 로타리에도 적극 참여, 국제로타리 초야봉사상, 제단 특별공로상 등을 받았다. 김 대표이사는 '나누는 삶'에도 앞장 서 왔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6억 9000여만원에 달하며 특히 모교인 광주고와 조리고등학교, 연양김씨 장학재단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자랑스러운 광고인상, 숨은 의인 전남도지사 표창, 나눔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한편 자서전에는 뿌리 찾기, 수업시대, 교사 시절, 사원에서 사정까지, 국제로타리 클럽 활동 등 모두 7장에 걸쳐 김 대표이사의 삶이 담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명군 금호주택 대표이사 투계터광산 발전기금 1000만원

(주)금호주택 김명군(사진 가운데)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청을 방문해 구청 장실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에 발전기금을 후원했다.

이날 김 대표이사는 광산구 관내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돕는데 써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 대표이사는 2015년 광주일보를 통해 (새)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가 건축비용 부족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한 뒤 3000만원을 지원, 이를 계기로 지역 내 소외계

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광주대학교와 동강대학교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1000만원씩을 후원하고, 지난 8월에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몽골 광주진료소 건립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명군 대표이사는 "점차 날씨가 추워지는 등 겨울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지역민들이 없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도서관, 도서 기증 박광순·김춘섭 명예교수에 감사패

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 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장서 200만권 확충사업에 퇴임 교수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대도서관은 지난 13일 도서관 본관 5층 시청각실에서 개인 소장 도서 각 5,000여 권을 기증한 경제학과 박광순(왼쪽) 명예교수와 국어국문학과 김춘섭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본관 1층 현관에 명패를 부착했다.



박광순 명예교수는 2000년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에 몸 담았던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일본 동경대학 객원연구원 및 사가대, 구루메대 교수를 역임하며 모은 귀중한 일본서적 등 500여 권을 기증했다.

김춘섭 명예교수는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2006년 퇴임 후 일일문사(日又文畬)를 운영하며 여러 연구자들과 문학을 연구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전남대도서관이 장서 확충 사업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평생 모은 장서 5000여 권을 내놓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들 도서는 도서관 본관 5층 기증문고실에 비치됐으며이용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임환모 도서관장은 "평생 수집한 도서를 기증해주시는 두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증해주신 자료는 교수 및 학생들의 연구·학습과 지역 학술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경찰청 기동대 광주일고생 진로탐색 교육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대장 문기운)는 지난 25일 광주제일고등학교 방송반(지도교사 이맹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일보 제공>

신원경 조선대 교수 독일언어학회 '올해의 학술상'

조선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신원경 조빙객원 교수가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독일언어학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학술상'을 받았다.

신 교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독일언어문화 제71집'에 기고한 '뱀 벤더스의 베를린 전사의 시 분석-틀러의 이미지 이론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주목받았다. 참신한 연구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 교수는 독일 훔볼트 재단의 '학문 후속 세대'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 독어독문학계에서도 주목받는 젊은 학자로 알려져 있다. 조선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쳐 고려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5년부터 조선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발반사 동아리'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보육복지과가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동강대학교 보육복지과(학과장 김남근)는 최근 학교 봉사 동아리인 '발반사 동아리' 회원 25명이 북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주된 4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배식 및 주방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강대 '발반사 동아리'(회장 유재규·2년)는

지난 2009년 창립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지역 내 요양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신항력(前광주일보 주필)·김선희씨 차남 장호근 하이철화·박금자씨 장녀 혜선양=28일(일) 12시30분 서울 청담동 다정당 5층 그린테라스(더돔).
- ▲클라우드 필립·실비안느 필립씨 아들 다미양 필립(피아니스트)군 송계성·최형련씨 딸 이은(피아니스트)양=28일(토) 오후 5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 ▲형시영(광주남부경찰서 상황팀장)·하영남씨 아들 을욱군 전영택·박선실씨 딸 수경양=28일(토) 12시40분 라세스 타워딩을 2층 열루체홀.
- ▲서승욱·신영란씨 아들 영석군 이석열(광주여상고)·김순애 씨 딸 훈영양=29일(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 2층 마제스틱볼룸. 피로연 21일(토) 오후 5시 삼부지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
- ▲안인섭(VIP장래타운 사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김미자씨 장남 기용군 고 박창국·허현순씨 장녀 은주양=29일(일) 오후 1시 S타워웨딩을 3층 메리

골드홀

- ▲김성원(가수)씨 차남 정재현군 박용호·고민자씨 장녀 슬기양=29일(일) 오후 1시40분 상무리츠웨딩을 2층 자스민홀.
- ▲이형열·한혜숙 씨 장남 중화군 김춘원·김미자씨 딸 효선 양=11월 4일(토) 오후 2시30분 서울 아칸벤션웨딩 아모르홀. 신부 피로연 10월 27일(금) 오후 5시30분 광주 알펜시아웨딩컨벤션 3층.

향우회

- ▲제10회 재광 고향인 화합한마당축제=28일(토) 오전 광주시 광산구 첨단근린공원 운동장, 문의 사무총장 신성호 010-3607-2118.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민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2017 2차 민주유공자 소양강좌=11

- 월 8일(수) 11시 5·18민주화운동 교육관 대강의실에서 5·18민주유공자, 관련자(가족), 일반시민 등 대상. 강좌 주제 '변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문의 010-6624-6535.
- ▲무료자선봉사는=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펙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광주서구중동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 ▲광주북구중동관리센터 무료 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악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을 위해 무료 상담 및 교육 실시 062-526-3370.
-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

- 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광주대학교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나경/입향론, 비결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문의 010-3609-8117.
- ▲청춘FC 토요축구 회원 모집=축구를 사랑하는 50~60대 모집. 토요일 오후 2시30분 광주교육대학교 감독 010-2684-4490.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은=불교장단 장단에 앞서 합장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라카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부음

▲김양덕씨 별세 서군영·창호·미경·은경씨 모친상 박 진·정근택씨 빙모상=발인 28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301호 故정영자 님(여/76세) 子/子婦: 김중훈/김순옥, 철훈/김정은, 강남/이미선 女/婿: 김명희/김기동 *발 인: 10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	401호 故정남주 님(여/64세) 子/子婦: 박경상, 영상/아유미, 용상/김은혜 *발 인: 10월 28일 *장 지: 회선남연선영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이완수 님(남/62세) 子/子婦: 이민우/김은경, 현우/문경진 女/婿: 장단순 *발 인: 10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2호 故김수연 님(여/64세) 子/子婦: 이준재/유영지, 준수 女/婿: 이재수 *발 인: 10월 2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 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제길 www.mykumho.com	